



# 복지가 예술을 만나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 시킨다

“사회복지사, 자기개발로 가슴에 비전과 꿈을 키워라!”

| 취재 / 이영숙 (프리랜서)  
| 사진 / 박용득 (podo@welfare.net)

사람이 가진 저마다의 색깔과 특징을 향기로 표현해 낼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 자신만의 아름다운 향기를 지니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인고의 고통과 책임감 있는 성찰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작은 몸매 어디에서 품어져 나오는지 모를 넘치는 끼와 카리스마로 기자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킨 김석옥 사회복지사는, 인터뷰 내내 아름다운 향기를 갖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자기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일깨워 주었다.

김석옥씨가 그만의 향기로 만들어낸 직업 만도 시인, 수필가, 소리꾼, 사회복지사, 인터넷 음악방송국 진행자 등 남들은 일생에 두 가지 갖기도 어려운 직업을 척척 잘도 해낸다. 여기에 최근에는 중년의 열성팬들이 열광하는 인터넷 스타로 까지 불리고 있는가 하면 앞으로 또 다른 일에 도전할 수도 있다는 자신감까지 내비친 김석옥씨를 만나 사회복지사의 비전과 문학, 예술이 함께한 사회복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 부사장에서 인터넷 스타로 드라마틱한 전환

김석옥씨는 악성 뇌종양에 걸린 남편의 간병생활을 그린 병상일기와 군대에 입대한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쓰기 시작한 병영일기가 인터넷을 통해 아름답게 알려지기 시작하고 다음 카페 회원이 4,600여명을 넘기면서 중년의 인터넷 스타가 됐다.

그의 카페는 중년의 열성 팬들이 보여주는 에너지 넘치는 글로 시선을 끌고 있으며 김씨의 시와 노래 그리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빼곡히 써내려가는 병상일기와 아들에게 보낸 병영일기를 보며 팬들은 그의 진솔한 글과 노래를 통해 생활의 위안과 용기를 공유하고 있었다.

지난 5월 21일에는 인터넷 다음카페 회원들이 만들어준 콘서트 ‘오션지 위에 그린 소리꾼 김석옥의 음악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무대에 서기도 하는 한편 갑자기 유명해진 유명세 탓으로 여기저기 공연에 불러 다니느라 눈코 뜰 새 없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김석옥씨가 사회복지사의 길로 접어들게 된 이유는 CEO의 길을 걷기 위해서였다.

남편이 병상에 들기 전 재직하고 있던 회

사가 실버타운의 청사진을 갖고 있었기에 그의 나이 43세에 학사편입의 과정을 거쳐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회사의 대표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길이었으나 악성뇌종양이라는 남편의 병으로 회사를 떠난 후에는 사회복지와 자신의 재능인 예술과 문학을 연결시키는 그만의 사회복지를 펼치고 있는 셈이다.

그의 말대로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연출되고 있었다.

## 70억 짜리 복지관 건립이 꿈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 하지 않다’는 말이 그녀에게만은 비껴가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던진 70억 규모의 복지관 건립에 대한 질문을 그는 그림을 그리듯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지관을 짓는 것이 꿈이죠. 갤러리, 라이브 카페, 문화공간이 함께 공존하는 7~8층 규모의 복지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물론 맨 위층에는 저의 주거공간도 같이 마련해야겠죠.”

현실적인 부분인 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자

사회복지 분야도 문학과 예술을 결합시키면 훨씬 완성도 높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음을 누누이 강조했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자기개발을 꾸준히 할 때만이 사회복지사라는 위상과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사회복지사들의 비전과 꿈은 스스로의 노력에서 가능함을 역설했다.

금은 회사의 부사장 자리까지 올랐던 탁월한 그의 사업수단과 능력으로 충분히 모을 수 있다며 김석옥씨 만의 넘치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김석옥씨는 사회복지사로 상담을 할 경우에도 시를 이용해 상담을 하곤 한다.

“알콜중독자를 상담할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상담자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상담자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슬펐던 일, 살면서 가슴 아팠던 일, 술을 마시게 된 배경, 절망의 순간 등 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기만 하고 마지막에 그의 인생을 소재로 한 시를 한수 지어 읽어주었더니 눈물을 흘리더군요. 제가 그 사람의 인생 어느 부분을 충고하고 상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 그 사람의 인생을 시로 만들어주었더니 오히려 천 마디의 좋은 말보다 깊은 감동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상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김씨는 사회복지 분야도 문학과 예술을 결합시키면 훨씬 완성도 높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음을 누누이 강조했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자기개발을 꾸준히 할 때만이 사회복지사라는 위상과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사회복지사들의 비전과 꿈은 스스로의 노력에서 가능함을 역설했다.

“어느 분야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허드렛일만 하는 직업으로 전락한다면 50%는 사회복지사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학부 공부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특성



이 있습니다. 자기개발을 무섭게 해야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끼와 재능을 살려 상담에 적용하거나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복지 분야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오늘부터 찾아보세요. 좀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씨는 사회복지사들의 자기개발 향상을 위한 실용성 있고 강도 높은 재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스스로의 자각이 이루어지는 강력한 메시지를 교육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시와 노래는 사람을 위로하고 사회를 감동시키는 에너지

세상에 감사할 일로만 가득 찼고 너무 행복하다는 말을 인터뷰 중간 중간 재차 강조하는 김석옥씨는 “예술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집안에 환자가 생겼다고 생각 한다”며

바쁜 스케줄 가운데도 나눔의 집 홍보대사나 자원봉사 공연과 함께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장애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식사초대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그의 향기가 더욱 아름답게 퍼지는 이유와 팬들이 그에게 열광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아진다.

‘이슬 서린 잎새같은/ 배달남자 고운 수결/ 그 누가 밟았는가  
 잿빛 포장 어둠속/ 갓 피어난 정열 입술/ 그 누가 활렸는가  
 짐승야육 드러낸/ 천인공노 침략 남근/ 어인 일로 받았느냐  
 훌쩍 넘긴 육십여 해/ 모진 목숨 끊지 못한/ 가슴속 울분덩이/ 삭신 훑어 내려올 때  
 풍요로움 짙어지고/ 우아하게 태어난/ 이 땅의 후손들아 —  
 피빛 정조 짓밟힌/ 역사의 희생등이/ 그 앞에 웃길 여며/ 고갤 숙여 보았는가!’

이 시는 김석옥씨가 지난해 위안부 할머니인 고 김순덕 할머니의 발인제에서 영전에 바쳤던 추모시로 ‘슬퍼라 슬퍼라’라는 제목을 지니고 있다.

시를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과 넋을 조용히 위로하고 있듯이 오늘도 그의 시가 그의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회를 감동시키는 에너지로 작용하기를 기대해 본다. 

■ 소리꾼 김석옥 시인을 찾아서  
<http://cafe.daum.net/cdcafe>